

가을밤 오싹한 공포 경험 선사

26일~내달 3일,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 익산 교도소 세트장서 오후 6~10시 운영

가을밤 익산 교도소 세트장을 공포로 물들일 이색적인 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익산시는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2024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을 매일 오후 6~10시에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시작해 올해로 3회째인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은 익산의 관광 명소인 교도소 세트장을 배경으로 진행되며, 공포를 뜻하는 '호러'와 홀로그램을 융합한 축제다.

올해는 '호텔(HOTEL) 207, 죽음으로부터의 초대'라는 스토리텔링이 더해진 호러 홀로그램 콘텐츠로 한층 강렬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호텔 207에서 귀신들의 눈을 피해 숨겨진 힌트를 찾고 탈출하는 체험을 진행한다.

축제 기간 호러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27일 진행되는 개막식은 레이저 퍼포먼스와 △스퍼스타케이(K) 4 준우승팀 '딕펍스' 축하 공연 △호러



'2024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기간 동안 호러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과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운영될 예정이다.

홀로그램 페스티벌 브랜드 정체성(BI) 공모전 시상식 △EDM 공연 등이 진행된다.

27~28일은 총상금 200만 원 규모의 호러 코스프레 대회가 열린다.

아울러 상시 행사로 △프로젝션 맵핑쇼 △댄스공연 △호러 버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이 진행된다.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의 사전 예약은 공식 누리집(www.holofest.kr)에서 오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자는 축제장 입장과 호러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이 우대된다.

행사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을 위해 사전 예약과 현장 등록을 이원화해 관람 동선을 분리했다.

이를 통해 특정 콘텐츠에 관람객이 쏠리거나 장시간 대기할 예정이 없다.

또한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축제장에 방문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를 운영한다. 축제 관원은 연령 제한이 없으나 호러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 시 초등학생 이하 참여자는 보호자 동행이 필수다.

참여 신청, 순환버스 노선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holofes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더욱 강력하고 차별화된 스토리텔링형 호러 콘텐츠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페스티벌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5 국가유산 야행' 공모 선정

10년 연속 선정 · 도내 최대 사업비 확보 '성과'

군산시는 국가유산청 주관 '2025년도 국가유산 야행' 공모사업에 지난 19일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야행 첫해인 2016년부터 10년 연속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2024년보다 1억4500만원이 증가한 예산까지 받게 되어 도내 최대 사업비인 총 7억3000만원(국·도비 4억 2300만원) 확보한 경사를 맞이했다.

'국가유산 야행'은 지역에 집적된 국가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중 '군산야행'은 풍부한 근대문화 유산과 주변 문화시설을 야간에 개방하고 향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군산시는 2025년 야행을 올해 최초로 선정된 군산 내항 일원 '2025년 미디어아트 사업'과 연계해 동반 상승효과



를 노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 8월 한 달 동안 군산 내항 일원 및 야행 거리를 '야간 국가유산 활용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재조명하며 지역경제까지 활성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군산시 관계자는 "내년 야행은 10주년을 기념해 시의 유무형 국가유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국가유산청 5개 공모 선정 '쾌거'

국가유산 활용 우수성 인정받아... 사업비 약 12억원 확보

익산시가 국가유산 활용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가유산청이 공모한 5개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익산시는 2025년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11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사업은 △국가유산 야행 △고택종가집 활용사업 △생생문화유산 △세계유산 홍보지원 △세계유산 활용사업 등 5개 사업이다.

'국가유산 야행'은 2018년부터 8년 연속 선정으로 전국 최고 야행의 명성을 이어가게 됐다. 2024년도 국가유산 야행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사업비가 10% 이상 상황될 예정이다. 지난해 이어 전국 우수야행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은 익산의 자랑인 현대시조의 선구자 가깝 이병기 선생의 생가를 활용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선정됐다. 익산시가 추진해 온 가깝 문화관, 가깝시조문학상 등의 사업과 함께 새로운 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대물림맛집 12곳, 음식 무료 시식회

26~27일 'NS푸드페스타' 서... 매일 낮 12시 · 오후 2시 30분 운영

익산시와 NS홈쇼핑이 공동 개최하는 케이(K)-식품축제인 'NS푸드페스타'에서 익산 대물림맛집 12곳의 음식을 골고루 즐길 수 있다.

익산시는 지역의 대표 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축제가 진행되는 26~27일 매일 낮 12시와 오후 2시 30분에 익산 대물림맛집 무료 시식회를 진행한다.

이날 무료 시식회는 참여객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12가지 음식을 400명 이상이 맛볼 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다.

다. 또한 환경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대화용기로 시식을 진행한다.

대물림맛집 영업주들은 익산시에서 지원받은 식재료를 활용해 야외부스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제공한다. 아울러 참여자 이벤트를 진행해 12개 대물림맛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120장을 증정할 예정이다.

NS푸드페스타는 오는 26~27일 합영 제4일반산업단지 내 하립 퍼스트치킨에서 열린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 대비 교통 통제... 협조 당부

10월 2일 밤10시 ~ 6일 자정... 구 시청광장 옆 대학로 구간

군산시가 10월 3일부터 열린 '2024년 제12회 군산시간여행축제'를 대비해 2일 밤 10시부터 6일 자정까지 대학로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차를 맞는 '2024년 제12회 군산시간여행축제'는 'Hello Modern, 군산시간여행축제'를 구호로 삼고 '근대놀이'를 주제로 하여 다양한 체험과 경연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축제는 장소적 확장성과 프로그램의 집중성을 위하여 구 시청사거리에서 내항사거리까지 대학로를 통제하여 축제장으로 활용 계획이다.

따라서 10월 2일 밤 10시부터 10월 6일 자정까지 대학로 구간이 통제되며, 해당 구간을 통과하려는 차량은 우회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해당 구간 통행 차량은 △해당동 방면(구)시청사거리~해신동주민센터(△축성로 방면(구)시청사거리~가구거리~해보선참삼거리)을 이용하여 우회할 수 있다. 차량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우회도로 변경 주장은 금지된다.

시는 축제 기간 원활한 교통 통제를

위해 대형 화물차 통행 자제와 내항 주차장 내 주차 자제를 요청했다.

10월 3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해당 구간 구 시청광장 구간 교통이 통제된다. 오후 6시 30분부터 시간여행축제의 대표프로그램인 '시간여행 퍼레이드'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구 시청에서 도선장 방면으로 이동하려는 차량은 명산사거리에서 월명터널 쪽으로 우회해야 한다.

교통 통제시 시내버스 노선도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우회 운행된다. 노선은 △버스 2·3·7번, 11번~17번(왕편) 구시장~가구거리~중앙사거리~나운동 △버스 58·59번(왕복편) 중앙로~가구거리~해보선참삼거리~경안사거리를 경유하는 코스다.

버스 99번의 경우 오전 6시 50분, 오전 7시 50분 탑승 승강장이 기존 백년광장에서 명산사거리로 변경된다.

축제장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 군산시는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순환버스도 운행한다. 첫차는 월명경기장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며 30분 간

격으로 2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10월 3일은 축제 첫날로 오후 1시에 첫차가, 10월 6일은 축제 마지막 날로 16시 40분에 마지막 출발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순환버스 노선은 왕복 운행되며 운행구간은 월명종합경기장 정문 ↔ 구 시청 동문(새문문구앞) ↔ 백년광장(축제장) ↔ 군산수산물종합센터이다.

순환버스를 타고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모야모야시간 1시간 충전과 유료 프로그램 50% 할인 혜택을 주며 특별행사로 1명을 추첨해 금 1돈을 제공한다.

시간여행축제장 주변 주차장도 철저히 준비했다. 내항주차장, 수산물센터 주차장, 해양경찰서 주차장, 구)경찰서 주차장 등이 마련됐으며, 순환버스 연계 원거리 주차장으로는 월명체육관 주차장, 보호관찰소 옆 공영주차장, 군산시청 주차장 등이 있다.

한편 군산시간여행축제 관련 차량 우회 및 버스 노선 변경 정보는 군산시 누리집(www.gunsan.go.kr) 또는 군산시 시간여행축제 누리집(festival.gun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